<보기>는 영화 비평이다. (가), (나)를 바탕으로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지난주 개봉한 SF 영화 「○○」 속 미래 세계는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첫 화면에 등장하는 허공의 도시는 첨단 과학 기술이 집약된 거대한 우주선 같은 공간이고, 지상은 무너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다. 화면 가득 등장하는, 은빛으로 빛나는 허공의 도시는 가히 압도적이다. 몇몇 장면은 물리적 법칙에 어긋나 보이지만, 주요 사건의 인과 관계가 설득력이 있어서 영화의 전개를 따라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두 구역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서사는 우리 사회를 조망하게 한다. 다만, 두 구역 간의 갑작스러운 화해로 맺는 결말은 요즘 유행하는 SF 영화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① <보기>에서 ‘지상’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 이라고 언급한 것은, (가)에 따르면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 내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에 해당하겠군.

② <보기>에서 ‘허공의 도시’와 관련해 언급한 ‘압도적’인 느낌은, (나)에 따르면 SF의 장르적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③ <보기>에서 ‘몇몇 장면’의 과학적 오류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은, (나)에 따르면 SF에서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개연성이 중요 하다는 점과 관련 있겠군.

④ <보기>에서 두 구역의 갈등을 다룬 서사가 ‘우리 사회를 조망하게 한다’라고 언급한 것은, (가)에 따르면 분산적이고 파편 적인 사회를 종합적으로 통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⑤ <보기>에서 최근 ‘SF 영화의 경향’이라고 간주한 ‘갑작스러운 화해’는, (가)에 따르면 대중의 취향이 영화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